

세계는 지금...

국제 사진 뉴스

출처 : 신화넷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최소 29명 사망



9일, 사람들이 슈가아이에 사회구역에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다.

9일, 팔레스타인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은 "이스라엘군이 이날 가자 도시 슈가아이에 사회구역을 폭격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9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슈 민중, 팔레스티나 성원



7일, 사람들이 방글라데슈 수도 다카에서 팔레스티나를 성원하는 시위행진에 참가하고 있다.

예멘 후티무장: 미군의 사나 공습으로 4명 사망 25명 부상



7일, 사나에서 사람들이 미군 공습후의 건축 폐허 부근에 모여있다.

6일 밤, 예멘 후티무장 보건의당국은 미군이 예멘 수도 사나의 한 목표물에 공습을 가해 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가자지구: 의지할 곳 없는 어린이



7일, 가자지구 북부에서 찍은 의지할 곳 없는 어린이.

한국 여야 정당 여러명 차기 대통령 출마 선언

8일, 한국정부가 6월 3일을 차기 대통령 선거 투표일로 공식 확정된 뒤 여야 정당 여러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10일,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TV 화면을 통해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의 선거 홍보 영상을 보고 있다.



10일, 서울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미·로, 랑측 대사관 가동 재개 2차 회담 종료



10일, 이스람볼에서 미국 대표를 태운 차량이 이스람볼 주재 로씨야총령사관을 떠나고 있다.

10일, 미국과 로씨야 대표단은 토이기 이스람볼에서 랑측 대사관 정상 가동 재개를 위한 2차 회담을 마쳤다.

캐나다, 미국 자동차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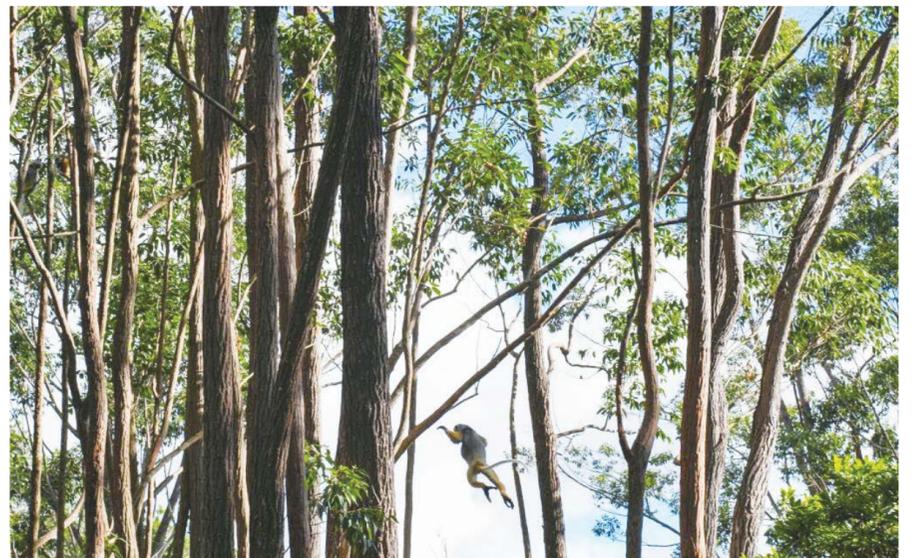
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폭포시 가미변경지대에서 자동차를 만재한 운수차 한대가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류이스턴·콘스턴다리를 통해 캐나다로 향하고 있다.

8일, 캐나다 재무부는 미국 자동차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9일 0시 1분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수림 속의 여우원숭이



3월 29일, 마다가스카르 안다시베 삼림공원에서 찍은 면류관 여우원숭이(冕狐猴).



마다가스카르는 많은 특유의 생물종류를 갖고 있는데 여우원숭이(狐猴)가 바로 그중에서 가장 특징이 있는 대표의 하나이다. 현재 과학자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100여종의 여우원숭이를 발견했다. 최근 몇년 동안 서식지의 파괴와 불법 사냥에 따라 대부분의 여우원숭이는 이미 국제자연보호련맹에 의해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에 포함되어있다.

제 78 회 칸네스영화제 기자회견



10일, 제 78 회 칸네스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빠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정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영화제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칸네스에서 열린다.

도미니카 나이트클럽 붕괴 사고 사망자 98명으로



8일, 구조대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8일 밤, 도미니카 응급작전센터는 수도 썬포도밍고에서 이날 새벽 발생한 나이트클럽 지붕 붕괴 사고 사망자가 98명으로 늘었고 100명 이상이 다쳤으며 이중 일부는 중태라고 밝혔다.